

야간 브리핑: 2026년 9월 3일 글로벌 시황

지정학적 긴장 속 차별화된 시장 흐름과 매크로 점검

[REPORT TYPE] Executive Visual Digest

[GENERATED] 2026-09-03 22:02 KST

오늘의 시장 키워드 (Executive Summary)



디커플링 (양극화된 국내 증시)

코스피는 대형 2차전지주의 견인으로 6500선을 방어하며 **강보합(+0.26%)** 마감한 반면, 코스닥은 외인·기관 양매도 속에 **790선이 붕괴(-1.71%)**되며 극심한 디커플링 연출.



인플레이션 압력 (FICC 불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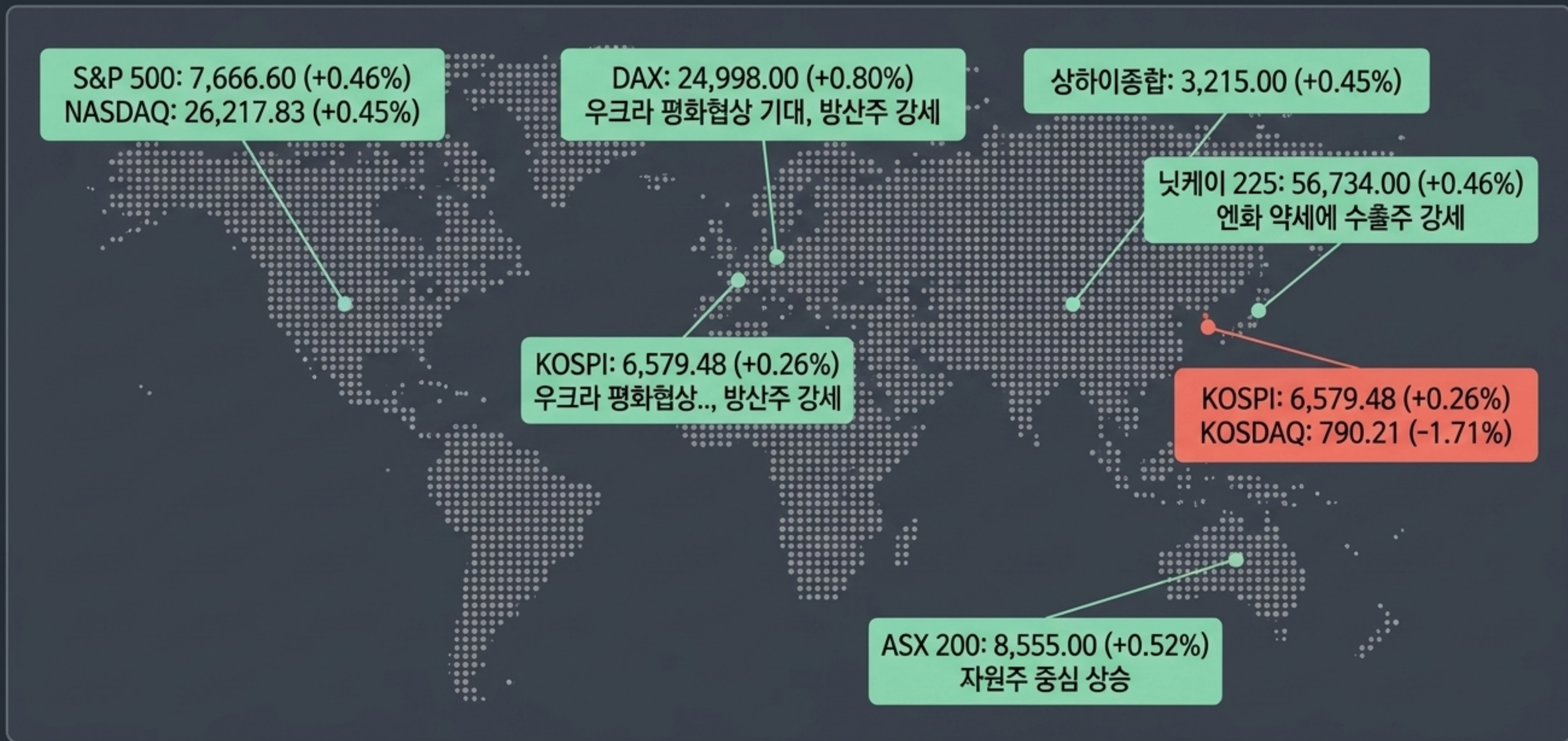
미·이란 공방 격화로 WTI 원유가 두 달 만에 **최고치(\$64.89)**를 경신하고, FOMC 매파 기조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**상승(+5bp)**하며 매크로 불안 심리 가중.



기대감 조정 (글로벌 IB의 경고)

기술주 중심의 미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, 골드만삭스는 향후 1년간 글로벌 증시 수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의 눈높이 하향 조정 권고.

글로벌 마켓 스냅샷 (Global Market Heatma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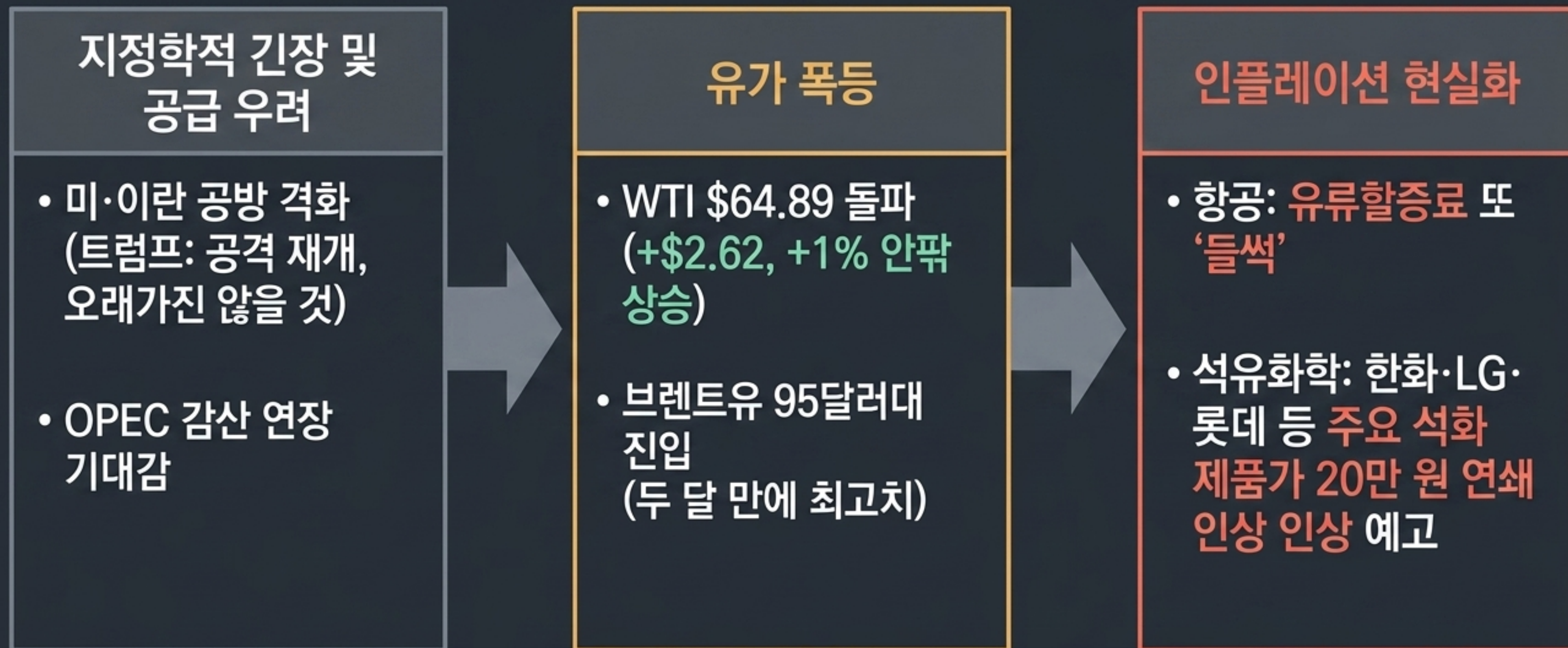


FICC 자산 시그널 매트릭스 (Cross-Asset Signal Decoder)

자산 (Asset)	현재가 및 등락 (Price & Change)	시그널 디코더 (Signal Decoder)
미 국채 10Y	4.776% (+5bp)	[Risk-Off] FOMC 매파 기조 재확인,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
WTI 원유	\$64.89 (+\$2.62)	[Risk-Off] 두 달 만에 최고치. 미·이란 공방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로 인플레이 압력 상승
금 (XAU)	\$103,000 (+\$18)	[Risk-Off] 달러 약세(-0.32) 및 지정학적 리스크 속 안전자산 선호 심리 지속
원/달러	₩1,358.44 (-5.30)	[Neutral]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, 외인 수급에 일부 긍정적 요인
비트코인	\$103,000 (+\$1,240)	[Risk-On] ETF 순유입 지속으로 대체 자산 랠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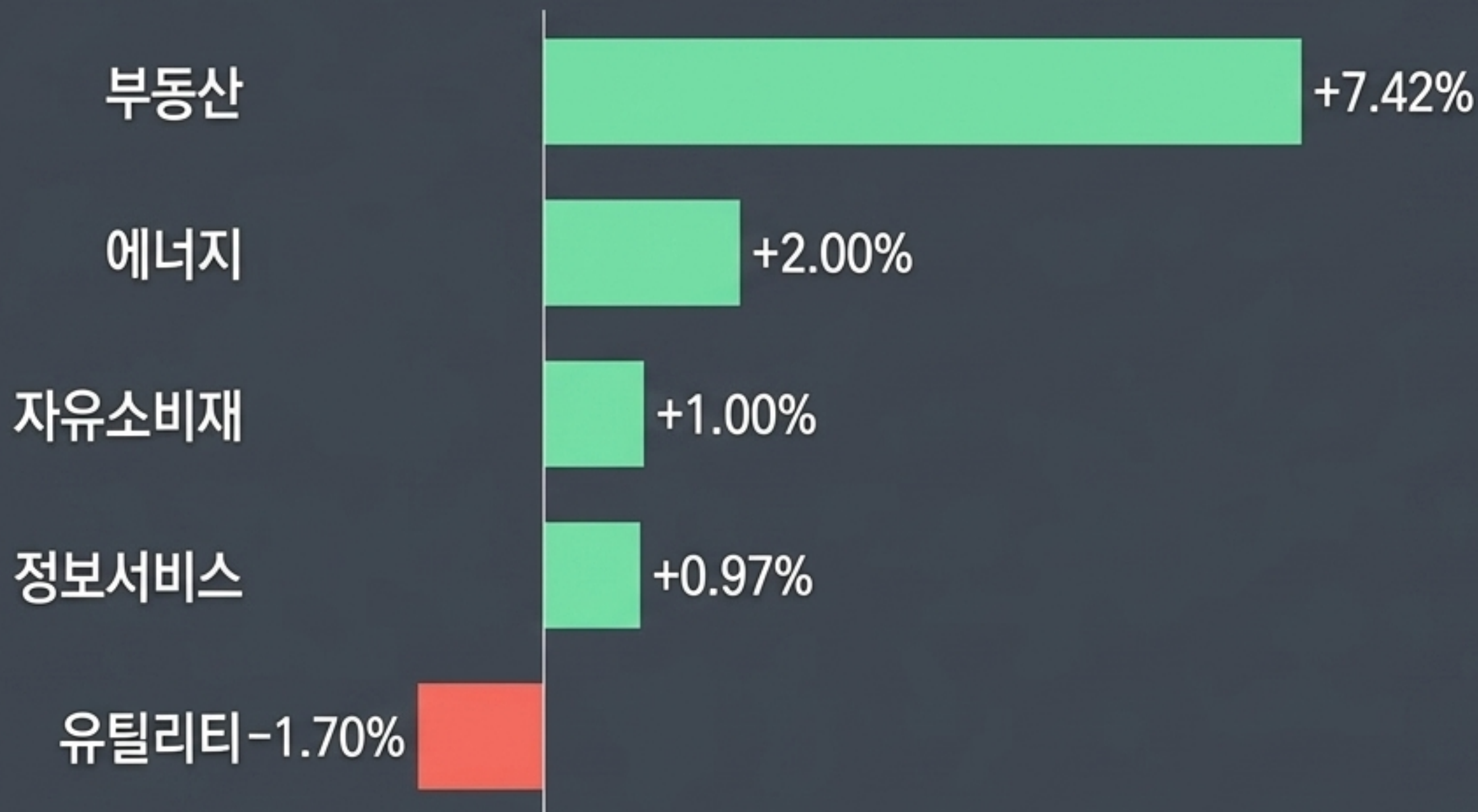
Insight: 금리와 유가의 동반 상승, 그리고 금(\$103,000) 가격의 폭등은 표면적인 주가 반등 이면에 안전자산 선호와 매크로 불안 심리가 짙게 깔려 있음을 시사합니다.

지정학적 리스크 파급 트리: 유가 급등의 나비효과



미국 증시 반등: 기술주와 부동산의 아웃퍼폼

1-Day Sector Performance



Market Context

금리 부담 완화 및 AI 강세 모멘텀이 기술주(NASDAQ +0.45%) 중심의 반등을 견인.

Stock Specifics

CXApp 등 나스닥 최저 입찰가 요건 재충족 및 M&A(애퍼지 테라퓨틱스 109억 달러 피인수) 등 개별 종목 이슈 활발.

엇갈린 투심: KOSPI vs KOSDAQ 디커플링 진단

KOSPI - 맷집의 증명

6,579.48 (+0.26%)

장중 흐름

- 10분 만에 고점 대비 4%p 급락하며 6400선까지 밀렸으나, 자사주 매입 버팀목과 '뒷심'으로 6579선 강보합 방어 성공.

수급

- 외인/기관의 매도 공세를 이겨낸 반등.

KOSDAQ - 구조적 취약성

790.21 (-1.71%)

장중 흐름

- 미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하락 전환, 종가 기준 790 붕괴.

수급

- 4거래일 연속 하락. 외국인·기관의 동반 매도 매도 투매 지속.

인사이트: 미 증시 반등에도 엇갈린 코스피-코스닥, 구조적 셈법과 한국 경제의 시험대 (데일리연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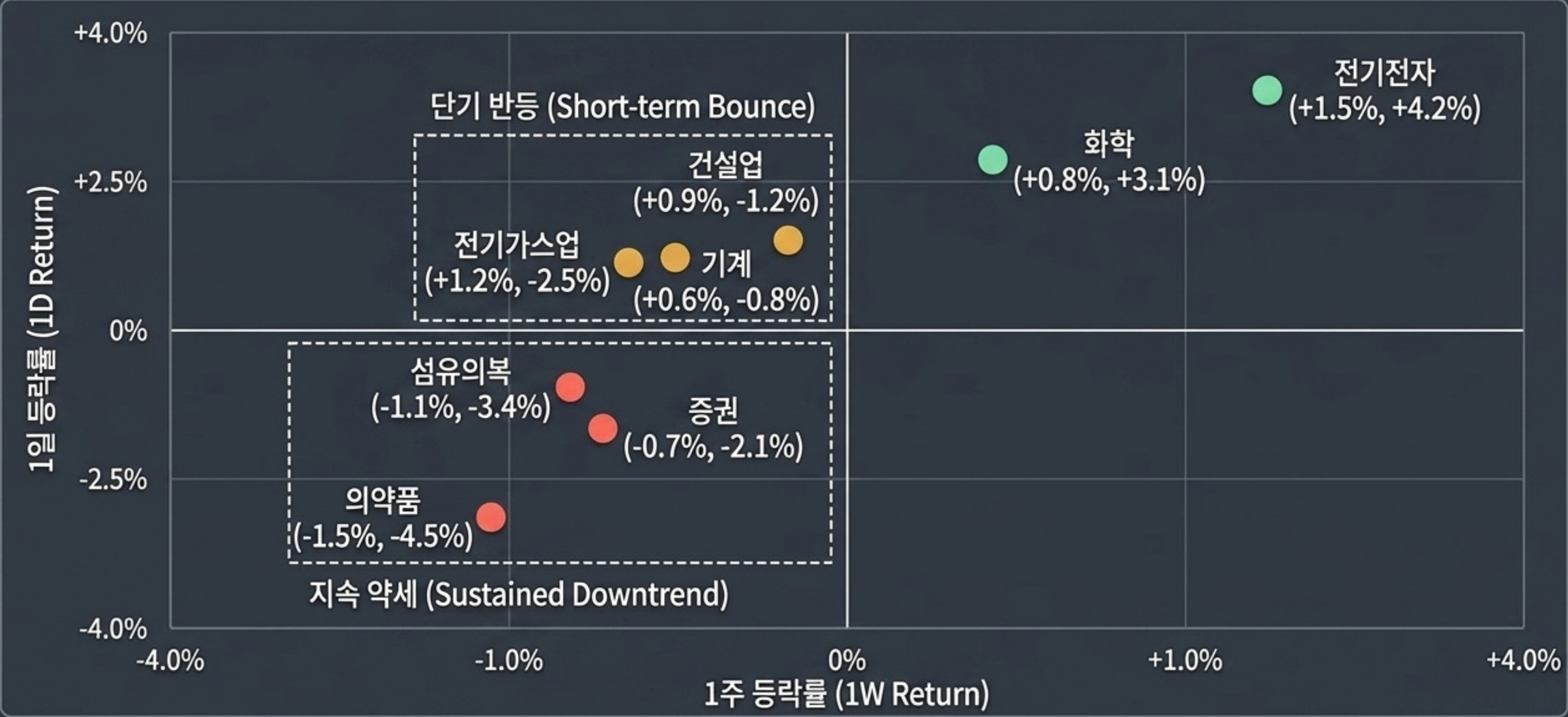
랠리 해부도: 코스피를 끌어올린 '2차전지 투톱'

삼성전자: -0.20% (250,000원)	SK하이닉스: -1.05% (1,596,000원)	LG에너지솔루션: +5.18%		LG화학: +6.69%
	젠사극무: -28,000원)	POSCO홀딩스: +3.64%		현대차: +1.46%
삼성바이오로직스: -1.60%			기아: +2.41%	

Key Takeawa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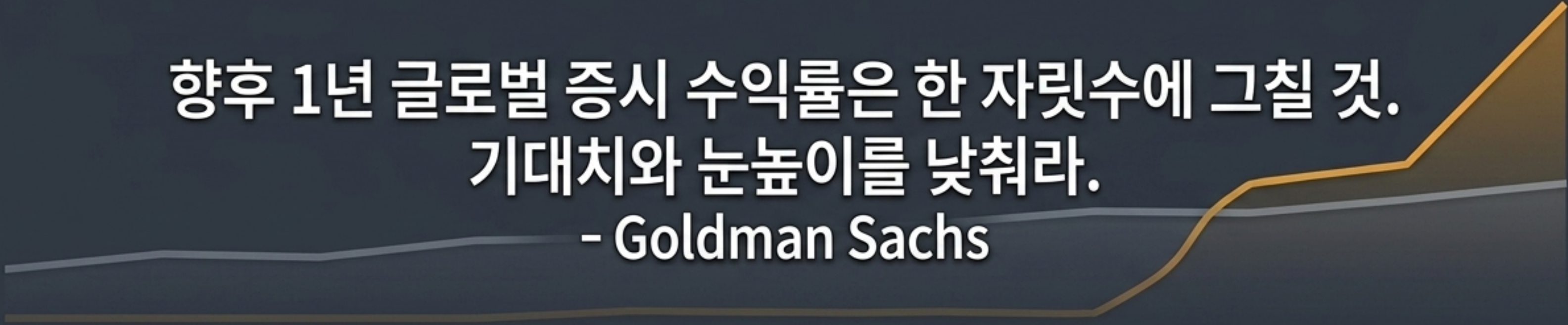
반도체 투톱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의 동반 약세 및 장중 급락에도 불구하고, 유가 상승에 따른 석화주 강세 및 배터리 대형주의 폭발적 랠리가 코스피 지수를 하드캐리하며 지수 착시 현상 발생.

국내 섹터 모멘텀 매트릭스 (1D vs 1W Shift)



살얼음판 위의 랠리 (Fragile Resilience)

향후 1년 글로벌 증시 수익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.
기대치와 눈높이를 낮춰라.
- Goldman Sachs



겉보기 (표면적 지표)

- 미 증시 연속 반등
- 코스피 대형주 랠리
-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어력 증명

속사정 (기저 리스크)

- FICC 경고 시그널 (미 국채 +5bp, WTI \$64.89)
- 코스닥 790 붕괴로 노출된 펀더멘털 취약성

결론: 단기 모멘텀 편승보다는 **매크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금리 장기화**에 대비한 **보수적 리스크 관리**가 필요한 시점.

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 (Next Steps & Monitoring)



[Macro] 美 주요 경제 지표 대기

아시아 증시 변동성의 핵심 변수인 '미국 고용 지표' 발표 결과에 따른 글로벌 국채 금리 및 금 가격 추이 확인.



[Commodity] 중동 불안과 유가 상단 저항선 모니터링

95달러대에 진입한 브렌트유 및 \$64.89를 돌파한 WTI의 추가 상승 여부, 그리고 국내 석화 기업들의 판가 인상(20만 원)이 실적 마진으로 직결되는지 여부 추적.



[Domestic] 국내 시장 수급 주체 방향성

4거래일 연속 코스닥을 짓누르는 '외국인·기관'의 양매도 포지션 전환 시점 및 삼성전자/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회복 여부 관찰.